

시론



강 동 완

조선대 명예교수·(사)생명존중 지구촌 연
대 부설 뇌건강 치과 시 연구회 회장

인간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예술매체를 통해 사랑과 공감을 경험하며 삶의 의미를 탐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가 심화되면서, 약자들의 고독과 사랑의 결핍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삶의 형태에서 사랑에 의한 인간적 삶의 가치를 살피야 할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구형 로봇인 헬퍼봇 5인 올리버와 6인 클레어의 대화를 통해 사랑의 보편성을 탐구한다. 이 작품은 지난 6월 제7회 토니상에서 6개 부문을 수상하며 K-뮤지컬의 저력을 입증했다. 주제곡 ‘우리 왜 사랑했을까?’(박천후 작사·윌 에런슨 작곡)’를 포함한 노래들은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 왜 그냥 스쳐가지 않고 서로 바라봤을까 우리 왜 끝이 분명한 그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을까” 흐르는 시간 속 결국 모든 게 흩어질 걸 알면서 입을 맞추던 서로 꼭 안던 그 때 우리, 우리 왜 사랑했을까.” 이 가사는 사랑과 상실, 관계의 복잡한 감정을 노래하며 현대인이 느끼는 고립감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프랑스 소설 〈자기 앞의 생〉의 주인공 모모는 창녀였던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약자이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 XVI

- 고독한 약자들의 보편적 사랑 이야기(I)

다. 모모는 사랑의 결핍과 고독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적 가치를 일깨운다.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노래 ‘모모(박철홍 작사·작곡)’에 담긴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모모는 방랑자 모모는 외로운 그림자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듯이 날개 짓 하며 날아가는 니스의 새들을 꿈꾸는 모모는 환상가~” 라는 가사를 통해 사랑이 인간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두 작품은 약자이지만 소중한 사랑의 보편적 힘을 보여준다. 모모는 로자 할머니의 고통과 희생을 이해하며 연민을 느끼고, 로자는 모모의 순수한 의지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올리버와 클레어는 대화를 통해 감정을 관찰·학습하며 사랑을 내면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유대를 형성한다. 이는 뇌의 거울 뉴런이 작동하는 공감의 과정을 보여 준다.

소설 속에서 모모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가까이 했던 하밀 할아버지에게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라고 묻고, “그렇단다”라는 대답에 눈물을 흘린다. 이는 사랑이 인간 존재의 핵심임을 상기시키며, 외로운 약자들이 말하기와 먹기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안정감을 얻는 과정을 보여준다. 모모와 로자는 초기 도파민적 낭만적 사랑을 넘어, 뇌의 옥시토신 및 바소프 레신 호르몬 시스템에 의해 형성된 안정형 애착을 통해 고통과 역경을 극복하며 뇌의 가소성을 통해 성장한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올리버와 클레어는 폐기될 운명에 처한 ‘구형 로봇’이라는 소외 받고 있는 약자의 처지에서 사랑과 기억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올리버는 “사랑한다는

건, 기억을 끌어안는 거야”고 말하며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고 클리어는 “관찰이 관찰아, 우리가 있었나”로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위로와 연대를 보여준다. 두 로봇은 ‘우리 같이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하자’는 대사를 주고 받으며 감정을 학습한다. 이때 ‘말하기’는 입술, 치아, 혀, 턱,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구강 자극이자, 청각·시각 피드백이 결합된 다중감각 경험이다. 대화를 통한 공감과 위로 장면에서 구강자극(노래·대화)은 도파민·옥시토신 분비를 유도, 로봇의 ‘감정 학습’ 경로를 활성화하는 은유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인간과 인간 간의 보편적 사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로봇과 로봇, 그리고 인간과 로봇 간의 관계에서 공감과 사랑의 가능성을 탐구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로봇 간에 형성되는 감정이 진정한 ‘사랑’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감성적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인간의 고독과 소외를 해결하려 할 때 인간관계의 본질적 중요성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뇌와 구강안면의 긴장이 상호작용으로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의 구체적인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미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앞으로 기술적 혁신을 포함한 연구와 임상적 방안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함께 잘 먹고, 웃고, 대화하고 노래하며 호흡하면서 이루는 사랑과 공감의 가치를 회복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홍익인간과 대동 세상

시골인, 경상도와 전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 소수자와 성 다수자, 부자와 빈자, 사용자와 노동자, 백인과 흑인과 황인, 지배자와 피지배자... 등을 가리지 않고 ‘너나없이 두루두루’ 이로우야 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모두가 똑같이 고루고루 즉 대동(大同)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압축성장과 그 그늘 그리고 물어지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자본논리 속에서 경쟁과 속도, 효율을 앞세워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난투, 격전장이 됐고 이제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하다. 거기에서 지난 3년 동안 못된 지도자의 차별, 적대, 배제, 혐오, 증오, 갈라치기 등으로 우리 민족 공유의 공동체 의식이 분열, 붕괴로 치달고 있다.

마침 새로 당선된 대통령도 이를 절감했는지 ‘대동세상(大同世上)’을 강조해 안도의 마음을 갖게 한다.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면 이재명이 꿈꿨던 강자의 폭력을 제치하고, 약자를 보듬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만들어 모두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4일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혐오와 대결을 넘어서서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우리가 꿈꾸었던 완벽한 대동 세상은 못 될지라도 이웃이 경계해야 될 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꼭 만들겠습니다. (중략)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고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의

신념을 확실하게 밝혔다.

혐오와 대결을 부추겼던 검찰공화국에서 서로 존중, 배려하고 협력함으로 공존의 기쁨 즉 공동체의 행복을 도모하는 대동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넉넉하게 만든다. 오랜만에 듣는 존중과 배려라는 말만으로도 심신의 이완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억강부약해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명실상부한 대동세상 대한민국을 새 대통령과 함께 온 국민이 만들어갈 꿈을 꾸게 된다.

대동 세상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다. 조선시대에도 대동계를 조직해 억강부약으로 모두 함께 잘 사는(두루두루 잘 사는) 평등한 세상, 대동 세상을 꿈꾸기도 했다. 공자도 “나라와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인구가 적음을 근심하지 말고 군동하지 않음을 근심하라. 재정 빈약함을 근심하지 말고 화합 깨지는 것을 근심하라. 군동하지 않으면 가난은 없어지게 된다. 화합하면 인구가 줄지 않고 안정되면 나라가 망하는 일이란 없다.”(논어 계시편)고 하여 백성이 골고루 잘 살면(홍익인간, 대동세상) 나라가 안정되고 망할 일이 없다고 했다.

이제 우리의 살 길은 분명해졌다. 새 대통령의 연설처럼 ‘혐오와 대결을 넘어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면’ 된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한데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대안이다, 해결책이다. 마침 대통령도 명심해 함께 억강부약으로 대동 세상을 만들어 가자니 우리의 건국이념이요,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대동 세상이 이제 제대로 이뤄질 것 같아 꿈에 부른다.

/이 기사는 지식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자치칼럼



이 계 앙

품자주자 시민들 공동대표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장

홍익인간(弘益人間)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자 교육이념이다. 이는 “옛날 환인(桓因)의 서자(庶子) 환웅(桓雄)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白)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 한지라, 이에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삼국유사》권 제1 ‘기’편)는 기록에 근거한다.

‘홍익인간’은 미군정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으로 삼았으며, 1949년 12월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했다. 이 조항은 〈교육법〉이 수립 차례 계정되는 중에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은 예수의 박애 정신, 공자의 인, 석가의 자비심과 함께 인류의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널리’는 ‘두루두루’라는 뜻이다. 강자와 약자, 남자와 여자, 동양과 서양, 좌와 우, 지위의 높고 낮음, 배움의 많고 적음, 도시인과

독자투고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까운 하천, 계곡을 찾는 물놀이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영금지구역에서 안타깝게 인명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영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위험한 물놀이를 즐기는 경우도 있어 우려가 크다. 여름철 안전사고는 과도한 음주와 물놀이 금지구역에서의 수영행위 등 안전수칙 불이행

에서 출발하고 있다. 물놀이 금지구역은 수심이 깊거나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해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 피서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 경고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대체로 수심이 깊어 사망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가족과 지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방지해서는 안 된다.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물놀이 금지구역에서의 수영을 하지 않는 한편 사전 운동 및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수영금지구역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김덕형·장성경철서경우계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골목상권 살릴 지역화폐 재정 지원은 국가의 의무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회를 통과했다. 국가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하는 게 골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화폐는 주요 거래처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성장에 특목히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규모가 축소됐다.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원인으로 부각됐다. 자영업자의 매출 신장에 타격이 컸고, 주민들에 돌아가는 혜택도 감소했다.

코로나19때보다 더욱 위축돼 있다.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상태다. 지방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이참에 지역화폐 발행 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현행 재량 규정에서 강화했

다. 극심한 소비 부진에서 벗어나고 골목경제의 활력을 도모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가 경영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 끝까지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가결된 지역화폐법이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돼야 한다. 나라의 각종 경제 지표가 최악이다. 이재명 새 정부의 제1 국정과제가 민생 회복이다. 지역에만 맡겨둘 수 없다. 국가의 재량 행위 여선 곤란하다. 당연한 의무여야 한다. 명문화가 맞다. 지역화폐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책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지방 재정이 매우 어렵다. 지난 정부가 떠넘긴 세수 핑크 때문에 고갈 직전이다. 돈을 퍼 주는 것이 아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극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을 막을 도구로 쓰인다.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 균형발전의 토대다. 광주·전남 지자체들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발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진화중인 보이스피싱...피해자 보호체계도 보완해야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에도 불구하고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 2월 등급을 경고로 상향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55건, 금액은 152억원, 검거 인원은 34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20%, 87%, 44% 늘어난 수치다. 저금리 전환 등의 ‘대출 사기’가 137건, 신용카드사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 ‘기관 사칭’ 118건이었다. 피해 규모는 기관사칭형이 124억 원으로 대출사기형 28억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고액의 수표 발급을 유도하며 편취하는 대담한 형태가 성행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상반기 중 25건 24억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내기로 했다. 안내문을 공동주택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으로 경각심을 일깨웠고, 금융 기관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집중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다.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조직화·고도화되고

있다. 범죄 일당은 이름과 전화번호 등 기본 내용 뿐 아니라 통화기록 녹음, 실시간 위치도 확인하는 등 개인 행동을 통제하는데 능숙하다. 특히 신중한 적 없는 가짜 카드 배송으로 시작된 기관사칭형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산에 여유가 있고, 원격 제어하는 악성 앱 같은 정보 기술에 비교적 취약한 50대 이상이 주요 타겟이다. 사회 초년생인 20-30대도 취약한 편이다. 사법 당국의 다각적인 대책에도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주로 고령자와 서민들을 노리고 있다. 정부의 근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통신·금융 분야의 제도 개선, 기술 개발 및 정책 발굴에 힘써야 한다. 특히 진화 속도에 비해 더딘 피해자 보호 체계도 보완해야 하겠다.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라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 요구에 일응 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한번 당하게 되면 온전한 회복이 어렵다. 유형 수법과 예방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

아침물어는 詩

밥값

정호승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지옥에 한번 다녀오
겠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침에 출근하듯이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듯이 다녀오겠습니다
식사 거르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잡
수시고

외출하실 때는 가스불 꼭 잠그시고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지옥도 사람 사는 곳이었지요
지금이라도 밥값을 하러 지옥에 가
면
비로소 제가 인간이 될 수 있을 겁
니다.
(시집 ‘밥값’, 창비, 2012)

[시의 논]

인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프르드리히 니체는 ‘초인’에서 묻는다.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를 극복하고 새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가. 기존의 도덕률과 가치체계가 붕괴된 혼돈의 시대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삶을 경영해야 밥값을 할 수 있는가를. 수많은 질문 중에서 이 질문은 가장 근본적 질문이 될 것이다.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지옥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속으로 속고를 거듭한 화자가 답을 살아 내린 결론이다. 지옥에 다녀오겠다니. 생뚱맞다. 예상 밖의 대답이다. 중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악마와 함께 영원히 벌을 받는 지옥에 걸어 들어가겠다니. 무슨 뚱뚱자같은 소리인가. 죄만 짓고 살았던 말인가.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물을 때 답은 둘뿐 진지해진다. 염속해진다. 뉘께야 주어진 몫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대답이 사뭇 궁색해질 때가 허다하다. 지옥이라도 다녀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늦게나마 밥값을 하리라는 가열찬 자기경신과 의지에서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음을. 살아간다는 진정한 의미를 깨우칠 수 있음을.

〈윤상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천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